‘아수라’ 정우성 · 김성수 15년만에 재회

‘비트’ · ‘태양은 없다’ · ‘무사’ 이후 네 번째 합작품
전작들과 분위기 다른 본격 필름 누아르 · 범죄액션물

배우 정우성(왼쪽)과 감독 김성수(오른쪽)가 영화 ‘아수라’로 15년 만에 다시 만났다.

배우 정우성(43)과 김성수(55) 감독이 영화 ‘아수라’로 1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네 번째 합작품이기도 하다.

정우성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아수라’ 제작보고회에 참석, “김성수 감독과의 작업을 많이 기다렸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우성은 “내가 왜 김성수 감독과의 작업을 좋아하고 그리워했는지 떠올려보면, 정말 치열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작품도 15년 전 ‘무사’를 할 때처럼 정말 치열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우성과 김성수 감독의 인연은 각별하다.

그들은 ‘비트’(1997) ‘태양은 없다’(1999) ‘무사’(2001)를 함께했다.

‘비트’와 ‘태양은 없다’는 청춘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로 꼽힌다.

정우성은 두 작품을 지나며 방황하는 청춘의 아이콘으로 최고 스타 반열에 올랐고, 김 감독 또한 스타 감독이 됐다.

다만 이번 작품은 두 사람이 함께했던 전작들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아수라’는 본격 필름 누아르이고, 범죄액션물이다.

50대가 된 김 감독은 40대가 된 정우성에게 부패한 형사 ‘한도경’을 맡겼다.

영화는 부패한 형사, 악덕 시장, 정의의 가면을 쓴 괴물 검사가 한 데 뒤엉키며 벌어지는 지옥도를 그린다.

‘한도경’은 자신보다 더 악한 시장과 검사에 휘둘리며 그들이 만드는 아수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인물이다.

김 감독은 이와 관련, “정우성은 실제로 신사이고, 착한 사람이다. 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이 역할 해줘야 ‘아수라’ 세계의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악함이 더 잘 표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도경은 악당이지만, 더 큰 악과 정당함을 가장한 악에 짓눌리다가 폭발하는 인물”이라며 “이 역할은 근사한 이미지의 정우성이 맡으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정우성은 김 감독과의 작업에 대해, “김성수 감독은 15년이 지났어도 하나도 안 변했다. 더 독하고 더 까탈스러워졌다. 배우의 바닥에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쓰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정우성의 말처럼 ‘아수라’ 촬영 현장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촬영 현장 영상에는 날것의 느낌을 뽑아내기 위해 배우들이 직접 몸을 던져 연기하는 장면이 특히 많았다.

분량이 많은 정우성은 잔부상을 달고 살았고, 카 체이싱 장면을 대역의 도움없이 직접 소화해내기도 했다.

정우성은 이에 대해 “대역을 쓰고 안 쓰고는 쓸모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위험한 걸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인물들의 충돌을, 그런 실질적인 느낌을, 그런 치열함을 관객이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도경’은 자신보다 더 큰 악 사이에서 휘둘리며 주체를 찾지 못하는 인물이다. 이 인물의 그런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싶었다. 악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독함이 있는 인물을 그려내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감독은 “지금껏 감독일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정우성 덕분이다. ‘비트’도 정우성이 해서 잘된 것 아니겠느냐”며 “정우성을 믿었고, 역시 정우성다운 연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수라’는 28일 개봉한다.

/뉴시스

김현수, 멀티출루 ‘활약’ · 이대호, 한 경기 3안타 ‘폭발’

데뷔 후 처음 1번 타자 선발 출전 4타수 · 1안타 · 1득점 · 1볼넷

빅 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김현수(28 ·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멀티출루로 활약하며 8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빅보이’ 이대호(34 · 시애틀 매리너스)는 메이저리그(MLB) 데뷔 이후 세 번째로 한 경기 3안타를 몰아쳤다.

김현수는 1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캠든야즈에서 열린 2016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경기에 선발 좌익수 겸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안타를 생산한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종전 0.316에서 0.315(254타수 80안타)로 소폭 내려갔다.

팀이 0-3으로 뒤지던 1회말 선두타자로 첫 타석을 맞은 김현수는 토론토의 우완 영건 애런 산체스를 상대했다. 2루수 땅볼로 물러난 그는 3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아웃됐다.

5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현수는 산체스의 4구째를 받아쳐 우전 안타로 연결시켰다.

전날 토론토전에 이은 2경기 연속 안타이자 8경기 연속 출루행진이다.

김현수는 조나단 스쿱의 좌전 안타로 3루까지 진루한 뒤, 대니 마치도의 타석에서 나온 3루 실책 때 홈을 파고들어 득점까지 올렸다.

김현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는 3-5로 패했다.

볼티모어는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72승61패)를 기록 중이다.

이대호는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6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이대호가 한 경기에 안타 3개 이상을 친 것은 6월3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과 7월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 이어 세 번째다.

전날 텍사스전에서 5타수 2안타를 때려낸 이대호는 이틀 연속 멀티히트 행진을 벌였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45에서 0.253(245타수 62안타)로 올라갔다.

2회초 1사 후 첫 타석을 맞은 이대호는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타구를 때려냈다. 상대 유격수 엘비스 앤드루스가 잡아 1루에 던졌지만, 이대호가 그보다 먼저 1루를 밟았다.

이대호는 크리스 이아네타의 안타로 3루를 밟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했다.

이대호는 선두타자로 나선 4회 상대 선발 마틴 페레스의 2구째 체인지업을 노려쳐 중견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뽑아냈다. 그는 후속타자의 땅볼 때 2루에서 아웃됐다.

6회 1사 1루에서 이대호는 또다시 중전 안타를 날렸다. 이아네타의 볼넷 때 2루로 나아간 이대호는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을 밟지 못했다.

이대호는 8회에는 3루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시애틀은 텍사스에 1-14로 대패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 은파호수공원서 내일부터 해양수산부장관배 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

‘제2회 해양수산부장관배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 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군산 은파호수공원에서 펼쳐진다.

케이블웨이크보드는 수면과 평행하게 와이어를 설치해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해양레저 스포츠로, 각종 기술과 화려한 묘기를 선보이는 일명 ‘물 위에서 타는 보드’로 불린다.

이번 대회에는 프로, 아마추어, 학생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수준급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으로 관람객들에게 화려한 기술과 재미,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채행석 군산시 체육진흥과장은 “2년 연속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 유치로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체험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으로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산시는 명실상부한 스포츠명품도시 군산 건설을 위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대한체육회, 태릉 · 진천선수촌 몰래카메라 조사

대한체육회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의 몰래카메라 설치 파문과 관련해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을 탐색 조사한 결과, 현재 시설물 내에는 이상이 없다고 1일 발표했다.

체육회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대대적인 몰래카메라 탐색 조사를 실시했다.

30일 외부에서 전문보안업체를 섭외해 진천선수촌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방문자센터, 파트너하우스, 화랑관 여자숙소 등 여자 전용시설 151곳을 조사했다.

31일에도 오전 8시부터 태릉선수촌의 여자화장실, 숙소, 훈련장 라커룸 등 173곳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체육회는 “두 곳 모두 몰래카메라 설치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영 국가대표 몰래카메라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리우패럴림픽 한국선수단 브라질 입성

2016 리우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단이 브라질에 입성했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지훈련을 마친 7개 종목의 선수단과 한국에서 출발한 4개 종목 선수단은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공항에는 브라질 한인회, 재브라질 대한체육회 등 한인 단체들이 나와 환영행사를 가졌다.

한국 선수단은 1일부터 종목별 훈련을 진행하며 오는 4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선수촌 입촌식에 참가한다.

개회식은 오는 7일 저녁 6시15분에 마라카나경기장에서 열린다. 한국 선수단의 첫 경기는 8일 오전 8시30분에 시작하는 사격 SH1 R2(여자 10m 공기권총)다. 한국 리우패럴림픽 대표선수단은 종합순위 12위권 진입이 목표다.

/김민근 기자